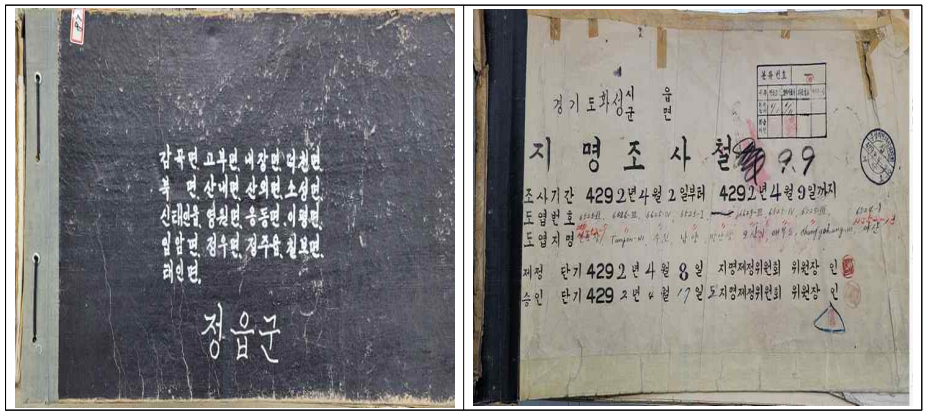
지명조사철 기록물



지명조사철 내용 일부

<전남 광주시 1959년>

행정구역명	지명(지도 상기재)	지명유래	비고
서효동 세동리	세동리	부락이 가늘고 길게 뻗혀 있으므로 세동이라 칭함	
남궁동 전라남도청	도청	건양지년(단기4229)에 노령의 남을 분할하여 전라남도로 칭하고 도행을 보행하기 위하여 도청을 광주에 설치하였음	
동운동 죽림리	죽림리	뒷산이 대나무와 솔이 무성하여 있어 이웃사람들이 후세가 번창하라는 뜻에서 죽림이라 칭함	
등용동 내촌리	내촌리	부락이 깊숙히 있다하여 안골로 칭하다 한자화하여 내촌으로 호칭함	
문화동 문산리	문산리	부락뒤에는 삼각산 줄기가 내려와 문자형으로 되어있으므로 문산이라 칭함	
방림동 하로리	하로리	80여 전의 자연부락으로서 주위 지형이 부채형이기 때문에 부채울이라 하였으며 광주시로 편입과 동시에 창설 당시 호수 그대로라 하여 하로라 칭함	
봉주동 옹정리	옹정리	성촌 당시 촌전에 조그마한 샘이 있으므로 자연적으로 샘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옹정부락이라 칭함	
염주동 주월리	주월리	마을형체가 중이 염불하는 염송채라 하여 2000년 전부터 염주동이라 불려왔는데 왜정시 약칭으로 주월이라 칭함	
본촌동 양산리	양산리	옆산 형국이 매화꽃이 떨어져 빛이 난다하여 양과 또는 옆에 못이 있었으므로 지와 양지라 칭함	
서석동 조선대학교	조선대학	박철웅씨가 건립한 대학교임	
사구동	사동,구동	사동과 구동을 통합하여 사구동이라 칭함	
산수동	산수동	왜정시에는 산우정이라 불리운 것을 해방후에는 산과 물이 좋다하여 산수동이라 칭함	
서산동 월산리	월산리	삼각산 등허리에서 월색이 제일 먼저 이 마을에 비친다하여 월산이라 칭함	
서산동 어매리	어매리	옛적에 소년이 모후를 잃어 이곳에 묻어싸가 하여 어매라 칭함	
상무동 대동리	택동리	본 부락에 죽림이 많아서 대골로 불리우다 한자화하여 지금의 죽동이라 불리움	
서호동 월산리	월산리	산형이 월형이라하여 월산이라 칭함	
신호동 화개리	화개리	옛날에 이화가 맣이 있어서 꽃이 만히이 피어서 화개라 칭함	
신호동 만호리	만호리	옛날에 마을앞에 큰 못이 있어서 만호라 칭함	
송석동 운리리	운리리	지형이 협소한 구름속에 있는 것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운리리라 칭함	
송석동 개동리	개동리	아침 햇살이 제일 먼저 비친다하여 개동이라 칭함	

<경기도 김포군, 강화군 1959년>

행정구역명	지명(지도상기재)	유래	비고
김포군 양촌면	대포리	옛날 큰개울이 있었음을 유래로 대포리라 칭하였음.	
김포군 양촌면	도사리	단기 4247년 행정구역 폐합당시 도이곳리의 “도”와 속사리의 “사”를 따서 도사라 칭함.	
김포군 양촌면	도니꾸지(도이곳)	옛날부터 이곳에 도로가 있어 길 뚫려 간것을 모방해서 도이곳이라 불리워 졌다함.	
김포군 양촌면	가오매(구지)	옛날 시민들이 작시 중 이곳을 가리켜 까마귀가 노래한다는 구절이 있어 가오매라고 하는것이 그대로 가오매가 되었음	
김포군 하성면	마곡리	진산이란 산에서 마고선비가 놀던 곳 이라 하여 마와 골자를 따서 마곡리로 칭하였음.	
김포군 하성면	동마동(동마리)	행정 구역명 마곡리의 동쪽부락으로서 동마동으로 불리고 있음.	
김포군 하성면	서마동(서마리)	행정 구역명 마곡리의 서쪽부락에 있다하여 서마동 속칭 서망골로도 불리고 있음.	
김포군 하성면	두곡동(두곡리)	500년전 민학사 시대에 개성 두분동의 역사를 의미하여 두곡동이라 칭하게 되었음.	
김포군 월곶면	군하리	이조시대에는 통진이라 칭하였으나 행정구역 폐합당시 군청소재지라는 의미에서 군하리로 개칭하였음.	
김포군 월곶면	고양리	고대적부터 이곳을 고양개라 불러왔음이 단기 4249년 행정구역 폐합 당시 고양리로 개칭하였다 함.	
김포군 월곶면	고정리	단기 4249년 행정구역 폐합당시 고척산의 “고”와 남정동의 “정”을 따서 고정리라 불렀다함.	
김포군 월곶면	동을산리	이곳은 이조시대부터 동을산이라 불리었으며 이곳의 산맹기 겨울 동(冬)자형으로 되어있다하여 동을산이라 부른다함.	
강화군 강화면	국화리	약 90년전에는 국상동, 국화동이라 불리웠던것을 이조말엽에 국화동으로, 경술합병 후에 국화리로 불리웠다함.	
강화군 강화면	신문리	홍문동 구천동으로 있던것을 “구”자를 :“신”자로 바꾸고 문자를 그대로 인용하여 현재는 신물리라 불리움.	
강화군 강화면	옥림리	한일합병전에 옥감동이라는 옥자와 임(林)동이라는 림자를 따서 한일합병후에 옥림리라 칭함.	
강화군 강화면	도감골,자문(無)	약 200년전에 유명한 도감선생이 살았다하여 도감골이라 부르고 마을에 자문(子文)이 있었다하여 자문이라 칭함	
강화군 길상면	동검리	서해에 서검리라는 섬이 있어 동검도를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동정리라 불리우고 있음.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옛날 거상면과 화도면 사이를 배가 통하였으며 지형이 배머리를 닮았다하여 선두리가 부르고 있음.	
강화군 길상면	장흥리	옛날 동리가 너무 빈한하여 동리를 부흥시키자는 의미에서 장흥리라 불렀음.	
강화군 길상면	쑥밧다리	옛날 총포용으로 쑥을 많이 쓰게되어 이곳에다 쑥을 많이 경작하게 하여 쑥밧다리라 불리우고 있음.	
강화군 내가면	현천	옛 선비가 지성으로 글씨공부를 하여 그 먹물이 내로 흘러들어서 검었다는 뜻으로 검을 현(玄)자를 따서 현천이라 칭함.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외주동과 정포의 행정구역 폐합으로 외주동의 외, 정포의 포를 따서 외포리라 칭함	
강화군 내가면	구하리	구하리는 비둘기 낭아래 있다하여 구하리라고 칭함.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구상동과 오상리가 행정구역 폐합으로 인하여 오미산의 오, 구상동의 상자를 따서 오상리라 칭함.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본리 어류정 탑재에서 옛날 봉화 불을 올리었는데, 불꽃과 바다의 파도소리를 따서 매음(煤音)이라 칭하였음.	
강화군 삼산면	새가리고개	옛적에 이 고개가 굉장히 험약하여 좀처럼 사람이 올라갈 수 없다하여 날으는 새만이 갈수 있다하여 새가리고개라 불리고 있음.	
강화군 삼산면	상리	이조때 교동군으로 속하였는데 한일합병 당시 삼산면으로 분합되었을때 큰 마을이 둘이 있는데 그중 위에 있는 마을이라하여 상리가 칭함.	